

통일연합종교포럼 6월 모임 열려

이영훈 목사, 권영세 통일부장관 등 참석



사단법인 통일연합종교포럼이 17일 CCMM빌딩 루나미엘레에서 6월 모임을 가졌다. 이사장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회 리더들과 통일부 권영세 장관,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이동섭 원장(국기원) 등이 참석해 함께 한반도 평화와 북을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회장 진중섭 장로의 사회, 안병광 장로의 기도 후에 이영훈 목사는 에스겔 37장 19~22절 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위상이 높지만 유일한 분단국가”라며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 가면 통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현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대북 인도협력력을 중심으로 강연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평양심장병원을 짓고 북한 어린이 돕기, 옥수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것을 알고 있다. 대북문제는 민간과 정부가 적절히 협력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교회의 북한 지원 사역이 한반도 북을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글·이미나 / 사진·김용두 기자

재단법인 글로벌엘림재단 제1차 이사회 진행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정착과 교육·문화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글로벌엘림재단이 창립돼 17일 제1차 이사회가 진행됐다.

여의도 패어몬트서울 스펙트럼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이사장 이영훈 목사와 이사인 김천수·이병규

장로, 권일두(국제사역CGI국장)·엄태욱(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정홍은(순복음성동교회)·황선욱(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변성우(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목사가 참석했다. 또 감사인 강태근 장로와 주정빈 목사(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구영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사무국 조직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글로벌엘림재단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연결해 글로벌 시민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오정선 기자

문헌일 구로구청장 당선인 교회 방문



이영훈 담임목사는 12일 성전비서실에서 우리 교회를 내방한 문헌일 구로구청장 당선인과 만나 환담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청장직을 맡게 되었으니 구로구와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크게 쓰임 받는 구청장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문헌일 당선인은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화답했다.

복순희 기자

이상운 목사, 홍콩 선교사 파송장 받아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는 12일 성전비서실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했다.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홍콩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사역하는 이상운 목사에게 파송장을 수여하고 안수기도했다. 이상운 목사는 파송 직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입국을 못해 파송식이 늦어졌다.

오정선 기자

2022년 장로고시 진행

2022년 장로고시가 12일 뱅셀성전에서 진행됐다. 장로고시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지방회가 주관하고 제직심사위원회에서 시험감독을 맡아 참관했다. 장로고시는 1교시(신약·구약 성경), 2교시(교리·신조와 교단헌법)로 진행됐다. 장로고시 합격자들은 26일 면접을 진행한다.

이미나 기자

굿피플인터내셔널, 미국지부 설립을 위한 이사 임명식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은 15일 여의도 굿피플빌딩에서 굿피플인터내셔널 미국지부 설립을 위한 이사 임명식을 진행했다. 이날 고영웅·정용훈·윤창재 목사가 굿피플인터내셔널 미국지부 법인의 이사로 임명됐다. 최경배 회장은 “굿피플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미국지부 설립은 큰 도전이자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순희 기자

순복음가족신문 THE FULL GOSPEL FAMILY NEWS PAPER	
2022년 우리교회 3대 목표	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2. 십자가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3.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
발행인/김호성 편집인/안재민/이승환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 전화/안내 02-6181-9191 www.fgnews.co.kr	
1984년 6월 15일 창간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전화 : 02-6181-6130-4 팩스 : 02-6181-6136

이영훈 목사 초청 여의도순복음덕연교회 특별성회



회에 참석한 교회 성도들과 기하성 총회 임원들은 덕연교회의 부흥과 순천지역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김영근 목사(기하성 전라 1지방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영훈 목사는 ‘성령의 역사’ (행 10:3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 전 순천 지역이 순복음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덕연교회를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는 성

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라고 강조하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도가 되어 지역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열 곁절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담임 김준기 목사는 “순천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순천 = 금지환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초청 수요자녀 특별성회가 15일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덕연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성

남선교회 6월 헌신예배



는 장영채 장로(안내시장)의 기도 후 정병성 선교사(순복음아프리카총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정병성 선교사는 ‘더 지혜롭게 행하며’ (삼상 18:30)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스페인의 선교상황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간증했다. 정 선교사는 “우리가 현실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믿는 만큼 역사 하

신다”고 말했다.

조자연 장로(환경개선실장)의 헌금기도 후 남선교회장 심재홍 장로는 조직실과 새성북지회에 우수봉사실상을 추선호, 이선호, 최학식 안수집사에게 우수봉사자상을 수여했다.

한편 남선교회 실행위원 워크숍이 11일 경기 포천 산정호수에서 개최됐다. 심재홍 회장과 회장단, 실장단, 지회장단 부부동반으로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한해 동안 봉사의 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단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복순희 기자

남선교회는 15일 세계선교센터 2층 시온성전에서 6월 헌신예배를 개최했다. 김풍환 장로(제3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

장로찬양단 헌신예배 드려



15일 바울성전에서 열린 수요 3부 예배가 장로찬양단 헌신예배로 드러졌다.

예배는 장로찬양단장 탁세진 장로가 대표기도 했으며, 찬양단이 특송 ‘하나님의 영광’과 헌금송 ‘십자가

에 달리신 예수’를 찬양했다. 또 찬양단원인 이상균 공로장로가 특별 간증을 전했다.

장로찬양단은 25년 동안 국내 곳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다.

이날 예배는 찬양대교구장 유성은 목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엡 5:18~20)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정선 기자

지성전·제자교회 소식

양서성전, 선교사 초청예배
양서성전은 선교대회를 맞이해 3~15일 선교사 초청예배를 드렸다. 선교사 초청예배는 오수환(카자흐스탄)·베드보라(I국)·윤창재(미국)·이베드로(M국)·김이삭(N국)·유경민(미국) 선교사를 초청해 드려졌다. 선교사들은 금요성령대망회와 주일1부 예배, 특별세례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각 선교지의 상황과 간증, 기도제목을 나눴다.

하다가 현재 아프리카 부룬디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심정미 선교사를 초청했다. 심 선교사는 ‘십자가의 도’ (고전 1:18)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며 “주님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강남성전, 선교사 초청 예배
강남성전이 3~16일 선교사 초청 예배를 드렸다. 3일 금요성령대망회는 최병삼 선교사(미국)가 ‘예수님이 내신 시험 문

제’ (요 6:5~13)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5일 열린 대학청년부와 3040선교회 연합예배에서는 김보혜 선교사(르완다)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당당한 지도자’에 관해 말씀을 전했다. 8~10일과 15~16일에는 김유동(일본)·김영철(미국)·박사무엘(T국)·서상진(대만)·김이삭(N국) 선교사가 각각 설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순복음의 제자들로 말씀과 기도 사명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성전, 선교사 초청 새성전 건축 부흥회
강동성전은 14~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강동성전 대성전에서 ‘선교사 초청 새성전 건축 부흥회’를 개최했다. 부흥회는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감사로는 양승호(미국)·김용만(우크라이나)·김관호(미국) 선교사가 초청돼 말씀을 선포했다. 나흘간의 부흥회에서 선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완전한 예배 회복을 강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함을 당부했다. 담임 김성만 목사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다음세대 부흥과 양육을 위해 힘쓰자”고 말했다.

동대문성전, 금요성령대망회 시작
초저녁 영업을 시작해 새벽에 일과를 마치는 동대문 상가 특성상 동대문성전에

는 최근까지 금요일 저녁 예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동대문 주변 상가도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동대문성전이 지난 5월 22일부터 금요성령대망회를 시작했다.

동대문성전 담임 김중현 목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를 제목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동대문성전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간구하고 있다.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두 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은 은혜 속에 찬양과 말씀, 기도로 신앙을 재무장하고 있다.

오정선·복순희·김주영 기자